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위원장 이 찬 열
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

김 해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박 경 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 용 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박 찬 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서 영 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신 경 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조 승 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곽 상 도 의원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김 한 표 의원
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

김 현 아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 군 현 의원
자유한국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 희 경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홍 문 종 의원
자유한국당
경기 의정부시을

오 세 정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정 동 영 의원
비교섭단체
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병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문의전화 1522-1755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8월 9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

윤종필 국회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했다.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해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성범죄자, 병원에 취업 못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약칭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가 7월 17일부터 확대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은 병원, 학교, 유치원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을 추가로 명시했다.

또한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내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었으나, 이 규정이 성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사유로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 사망원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

기대수명 85.4년 … 남성보다 6.1년 길어

2016년 출생한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85.4년으로, 남성의 기대수명(79.3년)보다 6.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여성은 65.2년, 남성은 64.7년으로 여성이 0.5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 추이**= 2018년 여성 인구는 257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우리나라 총 인구 5163만5000명 중 여성 인구는 49.9%를 차지했다. 남성 인구는 2588명1000명으로 여성보다 12만7000명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미만의 각 연령층에서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았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더 많았다.

여성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의 2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16.4%), 40대(16.2%) 순이었다. 남성 인구 역시 60대 이상이 전체의 1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16.7%), 50대(16.4%) 순이었다.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100.5명이었다. 특히 20대 성비는 114.0명으로 가장 높았다.

△**기대수명**= 2016년 출생한 여성의 기대수명은 85.4년으로, 10년 전 보다 3.3년, 전년 대비 0.2년이 증가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79.3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여성은 65.2년, 남성은 64.7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0.5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관적 건강평가 기간(전체 기대여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기간)은 여성은 68.4년, 남성은 68.8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0.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 2016년 인구 10만명당 여성 사망자 수는 501.5명으로 전년보다 9.4명 증가했다. 여성의 사망원인 1위는 암(117.2명)이었고, 다음으로 심장질환(59.4명), 뇌혈관질환(47.4명), 폐렴(30.8명) 순이었다.

남성 사망자 수는 597.5명으로 여성보다 96명 더 많았다. 남성의 사망원인 1위는 암(188.8명)이었고, 다음으로 심장질환(56.9명), 뇌혈관질환(44.2명), 자살(36.2명) 순이었다.

사망원인 중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2018년 우리나라 총 1인 가구는 573만9000가구이며,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284만3000가구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45.2%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29.3%), 20대(16.0%), 60대(15.9%), 50대(14.6%) 순으로 많았다.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20대에서 5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및 음주**= 2016년 여성 흡연율(평생 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은 6.1%로 전년보다 0.8% 상승했다. 2016년 남성의 흡연율은 39.4%로 여성의 6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은 5.4%로 전년보다 0.3% 상승했다.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21.2%로 여성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및 우울감**= 2016년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은 28.8%로 남성(27.0%)보다 1.8%p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여성의 우울감 경험율(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은 16.8%로 남성(9.7%)보다 7.1%p 높게 나타났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81
nursenews.co.kr

간호사를 위한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 · 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 우수전자거래 인증기업 / 벤처기업 인증기업 / 경영혁신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기업 / 원격평생교육 시설인증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좋은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업